

월세 몇만원 못내...취약계층 수십명 공공임대 쫓겨날 처지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7494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 7.32% 달해 2년 이상 장기 미납 임차인 대상 건물인도 소송 대부분 임차인 패소
코로나·고물가 피폐해지는 취약계층 삶...월세 차등화 등 대책 필요

“건물을 인도하라”, “미납 월세와 이자를 지급하라”, “건물 인도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 장짜리 판결문에 적힌 주문 요지는 간단했다. 광주도시공사(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임차인 중 장기미납자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의 내용이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은 지난 7일 도시공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보증금 290만원에 월세 5만7800원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해 장기미납자로 등록됐고 2년의 납부최고에도 230만원(2년간 미지급 월세와 이자)을 내지 못

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A씨외에 2건의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소송에서 모두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월세를 못내 쫓겨날 처지에 처한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월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장기미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엔데믹 상황에서도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 피폐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도시공사는 총 7494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영구임대주택이 4685세대로 가장 많고 국민임대(1536세대), 행복주택(1200세대), 공공임대(73세대) 순이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체납

각구는 549세대로 전체의 7.32%에 달한다. 이는 올해 1분기 금융권 부실채권(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비율 0.41%에 18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다.
하지만 2019년 6월 기준 3개월 이상 체납 임차인은 421세대였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6월에는 592세대로 급증한 이후 2021년 6월 533세대, 지난해 6월 545세대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세대가 늘고 있어 체납금액은 매년 6월 기준 3억9900만원(2019년)→5억 2500만원(2020년)→5억 5900만원(2021년)→5억 9200만원(202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2월 2년 이상 장기 미납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평균 25개월 이상 체납자 63세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1억1000만원이다. 소송이 제기되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현황

구 분	단 지 명	세대수
계		7,494
공공임대(73)	선운다사료음	73
국민임대(1,536)	하남2다사료음	886
	신창도시공사	650
영구임대(4,685)	쌍촌영구	500
	우산빛마을채	1,485
	금호빛마을채	1,500
	산정빛마을채	414
행복주택(1,200)	농성빛마을채	498
	주월빛마을채	288
행복주택(1,200)	광주영행복주택	700
	서림마을행복주택	500

(광주도시공사 제공)

아 27세대는 체납액을 완납했지만 나머지 36세대는 대안이 없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8건의 도시공사 임대주택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모두 임차인이 패소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게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이들 대다수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조차 의료비나 다른 생활비에 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도시공사가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제퇴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집행권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부에선 건물인도 소송이 취약계층인 임차인 ‘압박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소송에 앞서 주거취약계층의 월세 연세 계약 사유를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담능력을 따져 월세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기현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에 들어갈 때 최소한 의무로 약속한 것이 임대료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공공기관도 한가지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며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비영리 단체나 재단 등을 연계하는 다른 시스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사현장 아버지 사망사고 원인 밝혀라” 자매 폭염 속 시위

건설회사 책임자 수사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요구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10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건설회사 앞에서 만석의 임신부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임신부는 지난달 1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진 故 마재진(58)씨의 장녀 혜운(31)씨다.
혜운씨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32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검은색 옷을 입고 동생 혜진(아·27)씨와 부친이 사고를 당한 건설회사 앞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동생도 부친이 숨진 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복을 벗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내기 전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혜진씨는 “아버지는 참 순한 사람이었다”면서 “사고 당일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서면서도 가족들이 켈까 조심스럽게 나왔고, 힘들거나 다쳤을 때 티내지 않던 아버지 사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겠다”고 울먹였다.
두 딸은 집에서도 아버지를 ‘아빠’가 아닌 ‘재진씨’로 부를 만큼 삼가왔다고 회상했다.
특히 다음달 출산을 앞둔 혜운씨는 “결혼한 뒤 분가해 살던 중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을 해먹기 위해 엄마랑 시장을 찾았다가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전화로 접했다”며 “외손주를 본다

아파트 공사 현장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유족인 두 딸이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에 있는 건설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며 들떠있던 아빠 생각이 원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2인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아버지는 사고 이후로도 2시간 동안 방치돼야 했다”며 “만약 공사현장의 원칙이 지켜져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경찰 측 현장 안전관리자 입건까지 마친 상태에서 노동청 조사는 진행 상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14일까지 매일 두 차례씩 건설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출생미신고 61건 전수조사 완료

광주 딸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
전남 수사 5건 사망·입양 등 확인

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61명의 영아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광주 경찰에 30명, 전남경찰에 31명의 영아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 파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경찰이 의뢰받은 사례 중 2건은 전수조사에 앞서 이뤄진 표본조사 단계에서 접수됐다.
최근 광주시는 50명, 전남도는 86명 등 총 136명의 유령 영아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 44%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공식 수사로 전환된 사례는 광주 1건으로, 광주

경찰은 지난 2018년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은 31건 중 5건의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 중 2명은 병원 내에서 사망했으며 2명은 입양됐고, 1명은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236명의 영아가 출생신고를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인 23명을 대상으로 별인 표본조사에서 살해, 유기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확인되자 지난해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피해자인 척 고소·진정...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검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사범 12명을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법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고사범 12명을 적발해 기소(1명 구속·11명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가 포함되던 따라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지한 기록을 검토해 무고사범을 적발한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오려려 ‘혐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 고소했다’고 맞고소한 A(61)씨를 무고죄로 구속해 기소했다. 또 주점에서 외상값으로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맞기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B(55)씨를 최신 CCTV 영상분석을 통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임금·퇴직금 미지급 허위 진정, 사기 또는 명의도용 허위 고소한 이들도 적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무고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을 더욱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사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감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사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흥창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